차　　례

제1과
누구도 따를수 없게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 조국에 나오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2(1923)년 4월 창덕학교 5학년에 편입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나는 만경대에 며칠간 머물러있다가 외할아버지가 교감으로 계시는 창덕학교 5학년에 편입되여 조국에서의 공부를 시작하였다.》

창덕학교는 외할아버님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우신 학교였습니다.



창 덕 학 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학교에 들어가신 첫날부터 시간을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하시였습니다.

처음 얼마동안은 새로 배우는 과목에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그것은 조선과 중국에서 배워주는 과목이 서로 다르고 같은 과목이라도 배우시지 못한 내용이 있었기때문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학교에 가시여서는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들으시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시여서는 그날 배운것을 익히며 밤가는줄 모르고 공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모르는것을 그저 넘겨버리는 일이 한번도 없으시였습니다.

공부하시다가 모를것이 있으면 제때에 선생님을 찾아가 배우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배운 내용은 그날로 다 알고 넘어가시였습니다.

뛰여나신데다가 열심히 공부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으로 이름떨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모든 과목을 다 잘하시였지만 그가운데서도 조선어독본, 산수, 한문 같은 과목은 더욱 잘하시였습니다.

그때 학교에서는 한문을 배워주었는데 모든 학생들이 이 과목을 매우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려운 한문을 막히는데 없이 읽으시고 뜻풀이도 아주 정확히 하시였습니다.

어찌나 한문공부를 잘하시였는지 한문을 말아 배워주던 선생님도 더 배워줄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산수시간이면 선생님은 한 10분동안 학생들에게 암산문제를 내군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내여도 매번 선생님이 마지막수자를 부르기 바쁘게 정확한 답변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공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발표력도 좋으시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과목도 그러하였지만 국어나 력사 같은 과목을 배워준 다음에는 그 내용을 발표시키는 때가 많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제일먼저 손을 들고 일어나 발표하시였습니다. 얼마나 알기 쉽고 재미나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든 학생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창덕학교에 편입하시여 누구도 따를수 없게 공부를 잘하시였습니다.

제2과
일본어가 《국어》로 될수 없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창덕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신지 며칠 안되던 어느날 새 교과서들을 받으시였습니다.

조국에 나와 처음으로 받으시는 교과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교과서표지에 쓴 책이름을 살펴보시였습니다.

첫눈에 안겨온것은 《국어독본》이라고 쓴 교과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교과서의 책장을 번지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선말이 아니라 일본말이 적혀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몹시 분하시였습니다.

《국어》라는 말은 자기 나라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국어독본》교과서라면 조선말로 된 책이여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책은 조선말책이 아니라 일본말책이였던것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외할아버님께 그 책을 내보이시며 물으시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을 가지고 글을 배워야 합니까? 일본말책을 어떻게 국어책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목소리는 너무도 분하여 떨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외할아버님께서는 학교들에서 일본말을 배워주지 않으면 안되는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주시였습니다.

그때 우리 나라를 빼앗은 일제놈들은 강제로 모든 학교들에서 일본말과 일본글을 배워주게 하였습니다. 일본말과 글을 가르치지 않으면 학교문을 닫아버리게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덕학교에서는 겉으로라도 일본말을 가르쳐주는것처럼 하였던것입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본말책을 《국어독본》이라고 부를수는 없다고 생각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손칼을 꺼내시여 《국어독본》이라고 쓴 네 글자에서 《국》자를 긁고 그 자리에 《일》자를 써넣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그《일어독본》을 책상밑에 구겨넣으시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어느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만경대에 오시여 이웃에 사는 동무와 함께 공부를 하고계시였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산수공부를 끝낸 동무는 《국어독본》을 복습하자고 하면서 교과서를 꺼내놓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가 펼쳐놓은 책을 보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이 책은 〈국어독본〉이 아니라 〈일어독본〉이다.

일본말이 어떻게 우리의 〈국어〉로 될수 있겠느냐. 우리

말로 된 독본이 진짜 〈국어독본〉이다. 왜놈들은 조선사람들에게 제놈들의 말을 써넣은 책을 〈국어독본〉이라고 부르라고 강요하고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제놈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나라를 영영 빼앗고 우리 인민을 제놈들에게 굽신거리게 하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일본말을 강제로 배우게 하는 놈들의 검은 속심을 꿰뚫어보시고 동무들을 깨우쳐주시였습니다.

제3과
우리 말을 더 잘 배워야 한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창덕학교에 다니실 때 학생들가운데는 일본말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일본말을 아는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배워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느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몇몇 동무들이 일본말을 하는것을 보게 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시여 일본말이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훌륭한 우리 나라 말을 두고 일본말을 하느냐고 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제와 지주놈들을

쓸어버리자면 일본말을 배우느라고 할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말과 글을 배워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도 우리 나라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려고 천리길을 걸어 조선에 나왔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창덕학교에서는 일본말을 하거나 배우려는 학생들이 없어지게 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운동장에서 뛰놀던 동무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중국말을 배워달라고 졸랐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졸라대는 동무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다른 나라 말을 잘 아는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좋은 우리 나라 말이 있는데 무엇때문에 다른 나라 말부터 배우겠는가.》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 말은 매우 듣기 좋고 감정이 풍부하다고, 조선말로는 새소리도 낼수 있고 아무 나라 말이나 다할수 있다고 말씀해주시였습니다.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되였다는것을 깨닫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 칠골외가집에 오신 그날에도 마을사람들이 대원수님께 중국말을 한번 들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때에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사람은 응당 조선말과 글을 잘 알아야 하며 자기 나라의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일제놈들을 몰아내고 인민들이 잘사는 나라를 세우자면 조선말과 글을 잘 알아야 하며 조선의 력사와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마을사람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감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동무들과 마을사람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며 더 잘 배워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주시였습니다.

제4과
뒤떨어진 학생을 도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공부하시던 학급에는 여러번 락제를 하면서 5학년까지 올라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가운데는 아무리 애써도 락제를 벗어날수 없다고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 학생만은 공부를 해낼것 같지 않아 숙제검열을 할 때마다 제쳐놓군 하였습니다. 학급동무들은 그를 《바보》라고 하면서 그와는 놀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가슴아파하시며 학습반을 무어 공부 못하는 동무들을 도와주기로 하시였습니다.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모여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애가 계속 락제를 해온 원인은 학습에 대한 본인의 열성과 노력이 부족한데도 있지만 그보다도 동무들이 그를 잘 도와주지 못한데 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학생도 앞날의 조선을 떠메고나가야 할 귀중한 동무인것만큼 전체 학급이 힘을 모아 그의 학습을 도와주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학생자신이 노력하고 우리들이 잘 도와주면 그도 우등생으로 될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날 창덕학교에서는 처음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을 도와주는 학습반이 무어졌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학습반을 무으시면서 공부를 제일 못하는 그 학생을 맡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후 그 동무의 학업성적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시였습니다.

먼저 그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달라붙으면 공부를 잘할수 있다는것을 깨우쳐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까지 찾아가시여 산수문제풀이도 도와주고 다음날 배울 내용도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도움으로 그 동무는 점차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되였으며 학업성적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어느덧 학교에서는 학년말시험을 치게 되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시험이 끝난 다음 학년말총화를 하면서

그 학생이 우등을 하였다는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시였습니다. 선생님과 학급동무들도 그 동무를 열렬히 축하해주었습니다.

이 소식은 잠간사이에 학교는 물론 온 칠골마을에 퍼졌습니다.

그 학생의 부모들은 너무 기뻐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찾아와 정말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외할아버님을 찾아와서는 훌륭한 손자분을 두셨다고 인사하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따라배워 공부 못하는 동무들을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지나서부터는 학급의 학업성적이 쑥 올라가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학습반을 무어 공부에서 뒤떨어진 학생들을 잘 도와주시였습니다.

제5과
책읽기를 즐겨하시며

창덕학교 뒤산에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책을 읽으시던 독서터가 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면 독서터에 가시여 책을 읽군 하시였습니다.

온 정신을 모아 책을 읽으실 때면 동무들이 등뒤에



칠골독서터

와서 넘겨다보는것도 모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책만 아니라 우리 나라 력사와 지리에 대하여 쓴 다른 책들과 신문들도 읽으시였습니다.

책을 보시는데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동무들에게 자주 이야기해주군 하시였습니다.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독서터에서 책을 읽으시다가 동무들에게 시 한편을 읊어주시였습니다.

그 시는 먼 옛날 나라를 지켜싸운 남이장군이 쓴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시를 무척 좋아하시였으며 동무들앞에서 즐겨 읊으시였습니다. 그리고 시에 담긴 뜻을 동무들에게 설명해주시면서 그들의 가슴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책읽기를 즐겨하시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신 이야기는 만경봉학습터에도 깃들어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창덕학교에 다니실 때 일요일이면 만경대고향집에 가군 하시였습니다.

그때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고향집에서 조용히 공부도 하시고 만경봉에 올라가 책도 읽으시였습니다.



만 경 봉 학 습 터

어느 일요일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소를 몰고 풀을 먹이러 나가시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으시였습니다.

집안어른들은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았는가 하여 걱정들을 하시였습니다.

이때 할아버님께서 말씀하시였습니다.

《아마도 만경봉에서 책을 읽느라고 날이 저무는것도 모르고있을게다.》

작은어머님은 할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곧 만경봉으로 올라가시였습니다.

할아버님의 말씀대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소나무 우거진 아늑한 곳에 앉으시여 열심히 책을 읽고계시였습니다. 어찌나 책읽기에 열중하셨던지 작은어머님이 가까이 오시는것도 모르시였습니다.

작은어머님이 옆에 다가가시여 불러서야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작은어머니, 왜 여기까지 찾아오셨나요.》라고 하시며 일어서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제서야 해가 넘어갔다는것을 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작은어머님과 함께 집으로 내려오시면서 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야 하겠는데 밤낮 공부를 해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시면서 다음번에는 찾아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책을 즐겨 읽으시며 나라 찾을 큰뜻을 키워나가시였습니다.

제6과
메나골에서의 군사놀이

칠골마을 동쪽에 있는 메나골에는 무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귀신》이 있다고 하면서 알지도 못할 말을 내돌렸습니다.

어느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학교뒤산에서 공부하시다가《귀신》이 있는가없는가하는 문제를 내놓으시였습니다.

그러자 적지 않은 동무들이 《귀신》이 있다고 하면서 메나골에는 가기가 무섭다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럼 《귀신》을 본 아이가 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동무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볼뿐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큰소리로 웃으시며 정말 《귀신》을 본 사람은 없구나라고 하시였습니다. 이어 《귀신》이 있다는것은 거짓말이라고 일깨워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오늘 저녁엔 달도 밝으니 우리 다같이 메나골에 가서 군사놀이를 한번 본때있게 벌려보자.》

동무들은 모두 찬성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약속된 시간에 학교뒤산으로 모여왔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이끄시고 메나골로 향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무들은 대렬을 따라가면서도 정말 《귀신》이 나오면 어쩌나 하고 근심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걸음을 다그치시며 없는 《귀신》을 있다고 생각하면서 겁부터 먹으면 용감한 사람이 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동무들에게 힘을 북돋아주시기 위하여 이미 배워주신 노래를 부르게 하시였습니다.

목적지에 이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홍군》과 《백군》의 두편으로 가르신 다음 점령할 목표는 메나골 산릉선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곳까지 더 많은 아이들이 먼저 올라가는 편이 이긴다는것도 알려주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릉선에 빨리 올라가자면 무덤이 많고 《귀신》이 나온다는 골짜기로 올라가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놀이가 시작되였지만 누구도 선뜻 앞장서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돌격앞으로!》 하고 돌격명령을 내리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동무들이 들어서기 무서워하는 그 골짜기로 앞장서 달리시였습니다.

그러자 두편 동무들이 다같이 만세를 부르며 뒤따라섰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모든 동무들이 산릉선에 오르자 《그래 올라오면서 보니 무엇이 있더냐?》라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느님》이요, 《귀신》이요 하는것들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시여 《몸과 마음을 굳게 단련하여 지식을 넓히고 강한 의지와 대담성을 가진다면 그런 허황한 거짓말에 절대로 속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메나골에서 군사놀이를 하시며 동무들에게 《귀신》이 없다는것을 깨우쳐주시였습니다.

제7과
앞못보는 할머니를 도와

어느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학교에서 돌아오시다가 집을 찾느라고 지팡이로 더듬거리는 한 할머니를 만나시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마을아이들이 《소경》이라고 놀려주군하는 최씨할머니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할머니가 불쌍하게 생각되여 그저 지나갈수 없으시였습니다. 그래서 동무들에게 그 할머니의 집이 어디인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자 한 동무가 나서며 그 할머니의 집은 길가에서 얼마 떨어진 둔덕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둘러보시며 그 할머니를 집에까지 데려다주자고 하시였습니다.

그런데 동무들은 할머니가 저러다가도 집을 찾는다고 하면서 빨리 집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러는 동무들을 타이르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저 할머니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우리들은 저 할머니처럼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잘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 함께 저 할머니를 집에까지 데려다드리자.》

그러시고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집에까지 데려다주시였습니다.

동네에 나가면 아이들의 놀리움만을 받아오던 할머니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이 친절하신 행동이 너무도 고마와 눈물까지 흘리며 뉘집 아들인가고 물었습니다.

동무들이 김형직선생님의 맏아드님이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머리를 끄덕이면서 이름이 높은 집의 아드님이 다르긴 다르다고 감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도 앞못보는 할머니를 만나면 집에 데려다드리고 집안일도 도와주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발자국소리만 듣고서도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알아맞혔습니다.

할머니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칭찬하며 자기 손자들에게 **김성주**학생은 참으로 훌륭한 학생이다, 앞으로 꼭 두고보렴, 이다음 나라와 백성을 위해 큰일을 하실게다라고 말하군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칠골에서 제일 어렵게 사는 한 할아버지네 살림도 잘 도와주시였습니다.

자식이 없이 두 늙은이만 사는 그 집은 늘 일감이 밀리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런 사정을 아시고 공부가 끝나면 때때로 동무들을 데리고 그 집을 찾아가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미처 날라들이지 못한 곡식단도 져들이고 땔나무도 해주시였으며 마당질도 도와주시였습니다.

그 집 늙은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칭찬하는 사람은 그 집 늙은이들이나 앞못보는 할머니만이 아니였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자기 아들딸들에게 경애하는 대원수님처럼 례절이 밝고 이웃사람들을 위해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불쌍한 늙은이들을 잘 도와주시여 온 마을의 끝없는 존경과 사랑, 높은 칭찬을 받으시였습니다.

제8과
농사일을 도우시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창덕학교에 다니실 때 짬만 있으면 집안어른들의 농사일을 도우시였습니다.

밭김을 맬 때면 밭에 나가 김을 매시고 가을을 할 때에는 해가 질 때까지 가을걷이를 도와주시였습니다. 어떤 때는 베여놓은 곡식단을 져나르시고 도리깨질도 하시였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점심때가 훨씬 지나서야 학교에서 돌아오시였습니다.

그런데 외가집마당에서는 보리마당질이 한창이였습니다.

《아직도 마당질을 다 못하셨구만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점심밥도 드시지 않고 도리깨를 잡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보리마당질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마당질을 끝내신 다음에야 땀을 씻으며 허리를 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일요일이나 방학때면 만경대고향집에 가시여 농사일을 도우시였습니다.

그때 만경대고향집에는 농사할 때 쓰는 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주놈의 집에서 소 한마리를 얻어다

두 집에서 어울러썼습니다.

그러다나니 한창 바쁜 농사철에는 소를 쓰지 못하는 때가 많았고 그럴 때면 후치도 사람이 끌어야 하였습니다.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가시였습니다. 밭에는 벌써 할아버님과 고모님이 나와계셨는데 고모님이 후치를 끌려고 하시였습니다.

밭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할아버님께 말씀하시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후치를 좀 끌어보겠어요.》

그러자 할아버님께서는 웃으시며 굳이 말리시였습니다.

《너는 집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라. 네가 무슨 장사라고 그 힘든것을 끌겠다고 그러니?》

할아버님께서는 나어린 대원수님께 후치멜빵을 메우고싶지 않으시였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끝내 후치멜빵을 넘겨받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할아버지, 제가 얼마나 힘이 센가 한번 보세요.》라고 하시면서 후치를 끌기 시작하시였습니다.

처음 한두이랑은 그리 힘든줄 모르시였습니다.

그러나 한참 후치를 끌고나니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팽팽해지시였습니다. 게다가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이 념려되시여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 공부나 하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힘들다는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후치를 계속 끄시였습니다.

불덩이같은 해는 머리우에서 내려쪼이고 밭이랑에서는 더운 김이 훅훅 풍겨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후치멜빵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일이 다 끝난 다음에야 후치멜빵을 벗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농사일을 도우시면서 집안어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가를 깊이 알게 되시였습니다.

제9과
이 조개를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어느 일요일 아침이였습니다.

만경대고향집에 오시였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순화강으로 가막조개를 잡으러 나가시였습니다.

그때 순화강에는 가막조개가 많았습니다.

강에는 언제나 조개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만경대사람들은 늘 식량이 모자라 이른봄부터 가을까지 가막조개를 잡아 생활에 보탬을 하였던

것입니다.

강에서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조개를 잡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물에 들어서시여 부지런히 조개를 잡으시였습니다.

조개잡이가 한창일 때 밀물이 올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강둔덕으로 나오시였습니다.

강둔덕으로 나오는 사람들속에는 맥없이 걸어나오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찬찬히 살펴보시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먹지 못하여 퉁퉁 부어있었고 몸에는 누덕누덕 기운 누데기옷을 걸치고있었습니다.

그를 한참동안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 어느 집 아이인가고 물으시였습니다.

한 동무가 나서며 부모없이 할머니와 함께 김산서쪽 옷고개밑에서 사는 아이인데 나이는 9살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집으로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를 멈춰세우시고 자신께서 잡으신 조개를 몽땅 쏟아주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릴텐데 어서 이 조개를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 아이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조개가 담긴 다래끼를 번갈아보았습니다.

다래끼에는 조개가 넘쳐났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래끼가 넘쳐나 땅에 떨어진 조개를 주어모아 그에게 쥐여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할머니가 기다리겠는데 어서 집으로 가라고 등을 떠밀어주시였습니다.

그 아이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이 고마와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멀어져가는 그 아이를 한참동안이나 바라보시다가 저런 애들을 볼 때마다 불쌍해서 못견디겠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저 애나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야 하는것은 왜놈과 지주놈들때문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왜놈과 지주놈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가 잘살래야 잘살수 없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둘러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나는 조선에 나와서 헐벗고 굶주리는 저런 애들과 거지들을 볼 때마다 당장이라도 왜놈들과 지주놈들을 맞받아 싸우고싶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헐벗고 굶주리는 아이들을 보시며 일제놈들과 지주놈들을 반대하여 싸울 결심을 굳게 다지시였습니다.

제10과
《왜놈과 지주, 자본가는 한배속이다》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오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었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으시였습니다.

작은외삼촌은 기다리다 못해 몇집을 찾아가보신 다음 큰길로 나가시였습니다.

때마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평양쪽으로 뻗은 길에서 걸어오고계시였습니다.

작은외삼촌을 만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성안에 갔다오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외삼촌,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이런 억울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낮에 큰길에 나와보니 왜놈순사들이 죄없는 조선사람을 마구 때리고있지 않겠어요. 어떻게나 얻어맞았던지 그 사람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여 쓰러졌어요. 그런데도 놈들은 그를 끌고 성안으로 들어가더구만요. 그래서 나도 따라갔다오는 길이예요.

외삼촌, 나라없는 백성은 이렇게 매맞고 살아야 하나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다가 성안에 들어가보니 조선사람들의 살림이 정말 말이 아니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리시면서 그 모습들을 보니 일제강도놈들을 모조리 때려부시고 빼앗긴 우리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때로부터 몇달이 지나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학교에 나가시니 이웃반에서 공부하는 한 동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상스러워 동무들에게 알아보시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무네가 빚값에 집을 빼앗기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가게 되였다는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서운한 생각이 드시여 공부가 끝나자 곧 그 동무네 집으로 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그 집 뜨락에 들어서시자 마침 그 동무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깍듯이 인사를 하신 다음 어디로 이사를 간다는것이 사실인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가난한 사람이야 죽으라는 세상인걸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면서 집기둥을 가리키는것이였습니다. 집기둥과 방안의 농짝들에는 웬 딱지들이 붙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집과 모든 재산을 빼앗는다는 표식이였습니다.

원래 그 집에서는 몇해전에 지주놈의 집에서 조 한섬을 꾸어다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때에 갚지 못하고 몇해가 지나는 사이에 빚이 늘어나 조 한섬이 다섯섬으로 되였습니다.

그 집에서 빚을 갚을수 없게 되자 지주놈은 겨울이 닥쳐온 때에 집과 재산을 몽땅 빼앗고 내쫓았던것입니다.

그날 저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분하고 억울한 모든 일이 일제놈들과 남의 등을 긁아먹는 지주, 자본가놈들때문이라고 생각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신의 불같은 마음을 학습장에 한자두자 적으시였습니다.

《이 세상에 남의 등을 긁아먹는 지주, 자본가가 없어야 한다. 왜놈과 지주, 자본가는 한배속이다.

왜놈과 지주, 자본가가 없을 때라야만 모든 사람들이 편안히 잘살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은 한배속이며 놈들을 없애버려야 모든 사람들이 잘살수 있다는것을 깊이 느끼시였습니다.

제11과
만경대의 야학방

여름방학때였습니다.

어느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만경봉학습터에서 동무들과 함께 공부를 하시다가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지만 마을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우리가 방학동안에 그 애들을 맡아서 글을 배워주는것이 어떠냐?》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에 모든 동무들이 찬성해

나섰습니다.

동무들은 그날 저녁 온 마을을 뛰여다니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만경대고향집 다락으로 왔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여러 명이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모여앉은 동무들을 둘러보시며 사람은 누구나 다 배워야 하며 배워서 알아야 무슨 일이든지 잘할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아이들이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살길을 찾아 남의 나라땅으로 떠나가는것은 다 왜놈들때문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나라의 이런 형편도 잘 알수 있다. 그러니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도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제 이름자도 쓸줄 알고 세상형편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원쑤 왜놈들을 내쫓고 우리나라를 다시 찾아야 한다.》

아이들은 우리 글을 배우게 된것이 너무 좋아서 어쩔줄 몰라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만경대에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글을 배워주는 야학방이 생겨났습니다.

야학방을 내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 열심히 글을 가르쳐주시였습니다.



만경대고향집 다락

야학은 저녁에 2시간정도씩 하였습니다.

야학에서 배우는 학과목은 국어, 력사, 지리, 산수, 노래 같은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리 글 자모부터 배워주시고 그것을 익힌 다음에는 토와 받침을, 그다음에는 책읽는 법을 배워주시였습니다.

력사는 책이 따로없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하시는 력사이야기를 듣는 방법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지리공부도 재미나게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지리시간이 되면 자그마한 칠판에 조선지도를 그려놓고 설명하시였습니다. 우리 나라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고 땅속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하다고, 산은 산마다 경치가 아름답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산수나 노래도 알기 쉽게 배워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여름방학이 끝난 후에도 그들이 글을 계속 배울수 있게 학교에 다니는 동무들에게 몇명씩 붙여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께서는 나이많은 동무들을 맡으시고 만경대에 오실 때마다 글을 배워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도움으로 만경대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도 우리 글을 읽고 쓸수 있게 되였으며 점차 세상형편도 알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야학을 열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동무들을 공부시키시였습니다.

제12과
왜놈순사들을 골탕먹이신 이야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만경대고향집에 오시여 여름방학을 보내시던 어느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날도 공부를 끝내고 동무들과 함께 군사놀이를 하고계시였습니다.

그런데 대평주재소쪽에서 왜놈순사 한놈이 자전거를 타고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 왜놈순사가 구장네 집에 술추렴을 하러 온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놈을

대상으로 군사놀이를 하자고 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겁나하면서도 호기심이 나서 찬성해나섰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데리고 어느 한집에 들어가 널판자에 여러개의 못을 박으신 다음 그것을 대평으로 통하는 골안재 고개길 내리받이에 묻어놓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동무들과 함께 숲속에 몸을 숨기고 그쪽을 지켜보시였습니다.

얼마후 술에 취한 순사놈이 자전거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놈은 고개마루에 이르자 자전거를 타고 내리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자전거바퀴가 터지며 거기에 탔던 순사놈은 길옆에 나딩굴었습니다.

그놈은 한참만에야 일어났습니다.

동무들은 겨우 일어나 다리를 절룩거리며 자전거를 끌고가는 순사놈을 보고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도 왜놈순사들을 계속 골탕먹이시였습니다.

어느날이였습니다.

자전거를 탄 왜놈순사 한놈이 추자리나루터를 향하여 달려오고있었습니다.

남산에서 군사놀이를 지휘하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저놈을 혼내주자고 하시며 동무들을 데리고 남리나루터로 내려가시였습니다.

배가 남리나루터에 와닿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였습니다.

배는 천천히 기슭을 떠나 건너편 추자리나루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기다리던 순사놈이 자전거를 들고 배에 오르려고 하였습니다.

배에 타고계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그놈을 도와주는척 하시였습니다.

순사놈은 자기를 진짜 도와주는줄 알고 좋아하였습니다.

배가 두루섬나루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왜놈순사는 자전거를 들고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얼른 일어나 자전거를 들어주는척 하시면서 옆으로 약간 밀어놓으시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동무들은 삿대를 가지고 배머리를 슬그머니 돌렸습니다.

갑자기 중심을 잃은 순사놈은 자전거와 함께 배머리에서 떨어지고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왜놈순사를 보며 배를 그러안고 웃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묘한 생각으로 왜놈순사들을 골탕먹이시였습니다.

제13과
축구경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여름방학기간에 룡산보통학교와 축구경기를 할것을 계획하시였습니다.

방학이 절반쯤 지나간 어느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축구경기문제를 의논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룡산보통학교에 련락하기 위한 의견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교장에게 편지를 내는것이 어떠냐? 교장은 학교에 한명밖에 없는거구 또 학교에서는 교장이 제일 높지 않느냐? 그리구 높은 사람에게 제기해야 빠를수 있다.》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에 모두 찬성하였습니다.

편지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쓰시기로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편지를 쓰신 다음 그것을 동무들에게 읽어주시였습니다.

편지내용을 듣고난 동무들은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선수일동》이라고 하지 말고 《주장 **김성주**》라고 쓰는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편지를 보낸지 며칠이 지나 보통학교 왜놈교장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외할아버님께 회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놈교장이

크게 성을 냈다는것이였습니다.

그 리유는 학생들이 왜 조선말로 편지를 썼으며 학교들사이의 경기를 하겠으면 교감선생이 편지를 보낼것이지 왜 학생이 교장에게 편지를 보냈는가 하는것이였습니다. 다른 하나의 리유는 글씨를 보니 학생들이 쓴것이 아닌데 왜 선생이 쓰고 학생의 이름으로 보냈는가 하는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왜놈교장의 행동에 격분을 참을수 없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 경기에서 꼭 이겨 왜놈교장의 코대를 꺾어놓을 결심을 굳게 다지시였습니다.

외할아버님께서는 이튿날 체육선생님을 보통학교에 보내시여 축구경기문제를 의논하게 하시였습니다.

드디여 축구경기의 날이 왔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창덕학교 선수들의 맨 앞장에서 뽈을 끼고 뛰여나가시였습니다.

이어 축구경기가 시작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방어수로서 상대편이 몰고들어오는 뽈을 재치있게 따내시여 째인 공격을 조직하군 하시였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 여러번 거듭되는 가운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조직하신 뽈이 씽― 하고 날아가 보통학교편의 꼴문에 들어갔습니다.

《꼴! 꼴!》

요란한 웨침소리와 함께 북소리, 징소리가 운동장이 떠나갈듯 울려퍼졌습니다.

경기는 후반전에 들어와 더욱 치렬해졌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전술에 따라 창덕학교 선수들은 힘과 기술을 합쳐 계속 공격을 들이댔습니다.

그리하여 후반전에 또다시 한꼴을 더 넣었습니다.

경기는 2대 0으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이끄신 창덕학교 선수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창덕학교 운동장은 학생들과 마을사람들의 열렬한 박수와 환호로 떠나갈듯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축구경기를 통하여 조선사람들을 깔보는 왜놈교장의 코대를 꺾어놓으시였습니다.

제14과
왜놈학생들을 혼쌀내우신 이야기

여름방학이 되자 성안에서 사는 왜놈학생들이 민충이를 잡는다고 하면서 칠골로 쓸어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놈들은 몇놈씩 떼를 지어 나와서는 마을과 주변의 낮은 산들을 제세상처럼 싸다니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충이잡이는 하지 않고 농민들이 애써 가꾸어놓은 참외와 오이를 따먹으며 넝쿨까지 짓뭉개놓았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왜놈 학생들의 이러한 행동을 보게 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분한 마음을 참을수 없어 동무들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저놈들은 우리 나라를 빼앗은 왜놈의 새끼들이다. 우리 저 날강도같은 원쑤놈들을 쫓아버려 다시는 우리 칠골땅에 얼씬도 못하게 하자.》

이어 동무들을 이끄시고 그놈들에게로 달려가시였습니다.

참외밭에 다달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왜놈학생들에게 웨치시였습니다.

《주인의 승인도 없이 이게 무슨짓들인가? 참외를 그 자리에 놓고 모두 참외밭에서 당장 나가라.》

그러나 왜놈학생들은 잘못을 빌 대신 무슨 참견이냐고 하면서 오히려 제편에서 대드는것이였습니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증오에 찬 눈길로 놈들을 쏘아보시면서 좋게 이야기할 때 나가라고 거듭 말씀하시였습니다.

하지만 왜놈학생들은 제놈들의 무리가 많다는것을 믿고 더욱더 뻔뻔스럽게 놀았습니다.

지어는 조선사람을 깔보고 업수이 여기는 말까지 망탕 줴쳤습니다. 어떤 놈은 보란듯이 참외넝쿨을 우정 발로 문질러놓는가 하면 또 어떤 놈은 달린 참외를

발로 차며 히히닥거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더는 참을수 없으시여 왜놈학생들속에 뛰여드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놈들의 못된 행동을 막아나서시였습니다.

그러자 왜놈학생들은 감히 주먹질을 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덤벼드는 왜놈학생들에게 용서없이 된매를 안기시였습니다.

된매를 얻어맞은 놈들은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지르며 제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놈들에게 다시한번 칠골주변에 와서 얼씬거리다가는 죽을줄 알라고 엄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혼쌀이 난 왜놈학생들은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달아뺐습니다.

이때부터 왜놈학생들은 칠골주변에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이날 조선사람들이 힘을 합쳐 싸우면 일제놈들을 얼마든지 우리 나라에서 내쫓을수 있다는것을 느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못되게 노는 왜놈학생들을 보시면 용서치 않으시고 혼쌀내시였습니다.

제15과
친히 앞장에 서시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창덕학교시절에 교실을 깨끗이 거두고 학교를 잘 꾸리는 일에서 언제나 앞장에 서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누구보다먼저 학교에 나오시여 교실안팎을 청소하신 다음 조용히 앉아 공부하군 하시였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는 더 일찌기 나오시여 난로불까지 피워 훈훈하고 알뜰한 교실에서 동무들을 맞아주시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토요일을 대청소날로 정하고 이날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교실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게 하였습니다.

학급반장사업을 맡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토요일이면 대청소조직을 잘하시였습니다.

한번은 토요일에 교실마루바닥을 닦는 일을 하게 되였습니다.

이 일을 잘하자면 사기그릇 깨진것이 필요하였는데 그때는 보통 옹기그릇이나 놋그릇을 썼기때문에 사기쪼각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런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하루전에 몇몇 녀학생들에게 과업을 주어 얻어오게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대청소날 누구보다먼저 바지를 걷어올리시고 마루바닥을 닦기 시작하시였습니다.

그러자 동무들도 저마다 교실청소에 떨쳐나섰습니다.

교실바닥은 먼지 한점 없이 닦아졌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책걸상도 깨끗이 닦으시였습니다.

교실청소가 얼마나 잘되였던지 청소검열을 하던 선생님도 크게 감탄하고 돌아갔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학교를 꾸리는 일에도 앞장서시였습니다.

창덕학교에 오신 다음해 봄 어느날 비내린 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공부가 끝나자 청소당번을 남기고 모두 앞마당에 모이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모여선 동무들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모두 꽃을 많이 심어 꽃동산을 만들자. 그래서 학교를 꽃밭속에 잠기게 하자. 여기에는 함박꽃, 저기에는 나리꽃, 란초꽃, 채송화를 심어보자. 또 여기에는 딸기밭을 만들고 저기에는 리과에서 나오는 배추와 무우도 심어보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나시여 분공을 구체적으로 조직하시였습니다.

누구누구는 무엇을 심고 누구누구는 무슨 꽃씨와 꽃모를 구해와야 한다는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동무들은 자기가 맡은 분공을 수행하는데 달라붙었습니다.

어떤 동무는 자기 집 울안에 있는 매화꽃을 뜨러 가고 어떤 동무는 좋은 꽃모를 얻으러 친척집으로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룡악산에 가서 진달래를 떠오겠다고 하면서 떠난 동무도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이 구해온 꽃모와 꽃씨들을 화단에 심게 하시였습니다.

얼마후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여나 오고가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주변사람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第16과
맏형이 되시여

창덕학교 학생들가운데는 봄씨붙임이 시작되면서부터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농사일이 바쁜데다가 이른봄부터 식량이 떨어져 물구지, 냉이, 메싹 같은것을 캐서 끼니보탬을 해야 하였기때문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살림이 어려워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동무가 있으면 제때에 집으로 찾아가시였습니다.

그때 칠골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림이 어려

운데다가 일손까지 모자라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시게 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동무를 찾아가 힘껏 도와줄테니 함께 공부하자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다음날부터 동무들과 함께 매일 그 집에 가시여 집일을 도와주시면서 그가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할수 있게 해주시였습니다.

뿐만아니라 그 동무가 배우지 못한 내용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 집 할머니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뜨거운 그 마음을 생각하며 자기 손자를 매일 학교에 보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래학년 학생들의 학습도 잘 도와주시였습니다.

어느날 두학년 아래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백두산의 높이는 몇m이고 금강산의 높이는 몇m인데 어느 산이 얼마나 더 높은가 하는 산수응용문제를 푼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풀이가 끝나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백두산과 금강산이 어데 있는 산들인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선지도를 그려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땅이다. 백두산은 우리 나라 북쪽에 있는 산인데 제일 높은 산이다. 백두산에는 여러가지 나무들이 많으며 갖가지 짐승들과 새들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 게다짝을 신고다니는 왜놈들한테 짓밟히고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경치 아름다운 금강산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 이 산들을 도로 찾아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때면 우리들도 모두 백두산과 금강산에 가볼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새기며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꼭 찾으리라 마음다지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주시면서 그들을 친동생처럼 돌봐주시였습니다.

장마철이면 창덕학교앞으로 흐르는 도랑물이 불어나 어린 학생들이 외나무다리로 건느기 힘들어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럴 때면 도랑에 나오시여 그들을 한명한명 부축해주거나 업어서 건네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맏형이 되시여 가난한 집 아이들을 배움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어린 학생들을 사랑해주시였습니다.

제17과
밀밭에 물을 주시며

어느해 여름이였습니다.

그해따라 오래동안 비가 오지 않아 밭에 심은 곡식들이 새들새들 말라들어갔습니다. 그가운데서도 이삭이 패기 시작한 밀밭이 가물을 더 탔습니다.

마을사람들은 가물에 밀농사까지 망치면 당장 굶어죽는다고 걱정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비를 오게 해달라고 하늘에 대고 빌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늘이 노해서 비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런것이 아니라고 깨우쳐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되여 비가 내리는가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였습니다.

잠시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말라죽는 밀밭을 살려낼 좋은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대로 말라들어가는 밀밭을 어떻게 하면 살릴수 있을가 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동무들이 머리를 싸쥐고 생각을 거듭하고있을 때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좋은 수가 있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밀밭에 물을 길어다주자. 터밭에는 물을 길어다주어서 가물을 이겨내는데 밀밭이라고 안될 리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외가집에 가시여 물지게를 지고 나오시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동무들이 집에 가서 물지게를 지고 나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데리고 개울에 나가 물을 길어다가 밀밭에 주기 시작하시였습니다.

마을사람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좋은 생각을 해내시였다고 하면서 저마다 물을 길어다 밀밭에 뿌려주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해가 넘어갈 때까지 세마지기 되는 밀밭에 물을 다 주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데리고 물을 준 밀밭에 나가보시였습니다. 어제만 하여도 다 말라가던 밀잎사귀들이 하루밤사이에 물을 먹고 활짝 피여나있었습니다.

푸른 밀밭을 보는 동무들의 기쁨은 이를데없이 컸습니다. 동무들은 그 기쁨을 안고 매일 학교에 갔다와서는 물지게를 지고 나섰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데리고 밀밭을

찾아다니며 밭주인과 함께 물을 주시였습니다.

동네어른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칠골마을의 보배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늘만 쳐다보던 자기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가물이 들었다고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며 한탄할것이 아니라 제힘으로 이겨내야 한다는것을 실지행동으로 보여주시였습니다.

제18과
동무들의 잘못을 타일러주시며

어느날 두번째 공부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였을 때였습니다.

학생들은 휴식종이 울리자 운동장으로 나가 뛰놀았습니다. 그런데 몇명의 녀학생들이 학교옆에 있는 보리밭으로 달려가는것이였습니다. 보리밭에서 잘 날지 못하는 종달새를 보았던것입니다.

녀학생들은 종달새를 잡으려고 보리밭사이로 정신없이 뛰여다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많은 보리대가 넘어졌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녀학생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기로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곧 녀학생들을 보리밭에서

나오라고 부르시였습니다.

녀학생들은 종달새를 잡지 못한채 보리밭에서 나와 경애하는 대원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무엇때문에 부르시는지 딱히 몰랐지만 무슨 잘못을 저지른것 같아 머리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녀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너희 부모들은 모두 농사군이 아니냐. 그런데 농사군의 자식인 너희들이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꾸어놓은 보리를 저렇게 밟아놓으면 어찌겠느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학생들이야 공부를 잘해야지 그까짓 종달새를 잡아선 무엇하겠는가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종달새는 낟알을 먹지 않고 나쁜 벌레를 먹고사는 유익한 새이기때문에 잡아서는 안된다고 타일러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녀학생들은 무엇이 잘못되였는가를 깨닫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녀학생들을 교실로 들여보내신 다음 보리밭으로 가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녀학생들이 넘어뜨린 보리대를 손수 한대한대 일으켜세우시였습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날 창덕학교 학생들은 룡악산으로 등산놀이를 가게 되였습니다.

룡악산으로 가는 길옆에는 참외와 수박을 심은 밭들이 있었습니다. 밭에서는 먹음직스러운 참외와 수박들이 한창 익어가고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참외나 수박이 먹고싶었지만 꾹 참고 그냥 걸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몇몇 남학생들이 밭에 뛰여들어 넝쿨까지 짓밟으면서 참외를 따먹는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급히 불러내시여 남의 참외를 따먹어서야 되겠는가고 타이르시였습니다.

한동안 동무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아마 지주놈의 땅을 얻어부치는 이 참외밭임자도 우리 부모들처럼 지주놈에게 소작료로 빼앗기고 얼마 남지 않은 참외를 팔아야 쌀을 사다 식솔들을 먹여살릴것이다. 그런데 우리까지 밭을 짓밟으면서 참외를 따먹으면 밭임자네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러시면서 아무리 참외가 먹고싶어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남의것을 함부로 따먹어서는 안된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은 부드러우면서도 엄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정말 잘못하였다고, 다시는 남의 참외밭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동무들의 잘못을 제때에 타일러주시며 고쳐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제19과
왜놈들의 속심을 꿰뚫어보시고

어느 여름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수업이 끝나자 동무들과 함께 창덕학교 뒤산으로 올라가시여 공부를 하고계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포로 나가는 도로쪽에서 자동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손에 드셨던 책을 놓으시고 자동차소리가 나는쪽을 바라보시였습니다. 몇대의 자동차가 긴 전주대를 싣고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달리고있었습니다.

동무들은 자동차들을 구경하면서 자동차가 꽤 빠르다느니, 힘이 세다느니 하고 법석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는 달리 심중한 표정을 지으시고 서계시다가 《아니, 저놈들이 소문에 들리는것처럼 우리 칠골앞으로 전기를 끌어오려는구나.》 하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들은 한 동무가 《야, 참 좋구나. 전기줄만 뻗어오면 우리 칠골마을도 평양성안처럼 밤에도 대낮같이 환해지겠네.》 하면서 춤이라도 출듯이 좋아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동무들도 모두 좋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러는 동무들에게 전기를 끌어오려는 일제놈들의 검은 속심을 알기 쉽게 깨우쳐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제놈들이 늘이는 전기줄은 조선사람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거미줄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속이 엉큼한 거미란 놈은 어두운 구석에 잘 보이지 않는 줄을 늘여놓고 춤을 추는 나비를 잡아 피를 빨아먹고 살지 않는가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제놈들은 바로 거미와 같은 놈들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놈들은 전기줄을 자꾸 늘여놓고 조선사람의 주머니를 깡그리 털어가는것만이 아니라 기름이 뚝뚝 흐르는 조선의 쌀을 더 빨리, 더 많이 찧어서 제놈의 나라로 실어가자는 수작이란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일제놈들은 전기로 공장과 광산을 빨리 돌리여 땅속에 묻힌 우리 나라의 풍부한 보물을 몽땅 캐가기 위하여 전기줄을 늘인다고 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전기를 끌어오려는 일제놈들의 속심을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사흘동안 언덕을 에돌아가는 길 한복판에는 난데없는 바위돌들이 나타나 일제놈들을 당황해하게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들은 동무들이 일제놈들에 대한 격분을 금할수 없어 바위돌을 굴려내리군 하였던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언덕길에는 긴 칼을 차고 총까지 둘러멘 일제순사놈까지 나타나 길목을 지키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전기를 끌어오려는 일제놈들의 속심을 꿰뚫어보시고 동무들의 가슴속에 원쑤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게 하시였습니다.

제20과
동화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창덕학교시절에 동무들에게 재미나는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시였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그저 재미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여름 어느날 동무들의 학습을 지도하시다가 《비둘기와 개미》라는 동화이야기를 들려주시였습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느 봄날 비둘기 한마리가 먹이를 찾아 날아간 어린 비둘기를 기다리며 나무가지에 앉아있었습니다.

이때 사냥을 가던 한 포수가 그 비둘기를 보고 쏘아잡으려고 가만히 총을 겨누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 개미는 비둘기를 죽음에서 구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기여가 포수의 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갑자기 아픔을 느낀 포수는 총을 내리고 개미한테 물린 다리를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이때에야 사람이 곁에 있다는것을 느낀 비둘기는 날개를 치며 하늘높이 날아갔습니다.

죽음에서 겨우 살아나게 된 비둘기는 자기를 구원해준 개미의 은혜를 한시도 잊을수가 없었습니다.

비둘기는 어떻게 하면 개미에게 보답할것인가를 늘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에 큰 장마가 지게 되였습니다.

며칠동안 쉴사이없이 퍼붓는 큰비에 오붓하던 개미동산이 그만 비물에 휘말려 떠내려가게 되였습니다.

개미는 세찬 물결속에서 헤여나오려고 있는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몸은 자꾸만 물속에 말려들었습니다.

힘이 다 빠진 개미는 맥없이 물에 떠내려가고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비둘기는 새끼비둘기와 함께 나무

잎을 물고 날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개미가 떠내려가는 물우에 떨어뜨려주었습니다.

개미는 비둘기가 물어다준 나무잎을 타고 마침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리하여 새로 집을 짓고 다시 새 살림을 시작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동무들에게 어떠냐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자 한 동무가 일어서며 말하였습니다.

《야, 비둘기가 개미의 은혜를 갚았구나.》

《그래그래.》

동무들은 약속이나 한것처럼 다같이 대답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남의 은혜를 갚을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이 동화이야기에서 나오는 개미와 비둘기처럼 동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도와주어야 한다. 동무가 없이는 살수도 없고 산다 하더라도 사는 재미가 전혀 없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들은 누구나 자기 동무를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하며 특히 동무가 어려워할 때 그를 잘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동무의 사랑과 도움을 받기만 할것이 아니라 그에 보답할줄도 알아야 한다.》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많은 것을 느끼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동무

들사이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도와주어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주시였습니다.

제21과
서로 싸우는 일이 없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창덕학교에 오시여 두번째로 맞는 여름방학때였습니다.

만경대고향집에 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남리동무들과 추자리동무들이 싸웠다는것을 알게 되시였습니다.

그때 남리동무들과 추자리동무들은 때때로 두패가 되여 서로 싸우군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남리동무들이 얻어맞고 또 어떤 때는 추자리동무들이 맞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남리동무들을 데리고 추자리로 건너가시였습니다.

길옆 수수밭에 이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남리동무들과 함께 밭속으로 들어가시였습니다. 강가로 나오는 추자리동무들을 이곳에서 만나시려는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예견하신대로 얼마 지나서 추자리동무들이 미역감으러 강가로 몰려나왔습니다.

그들이 수수밭에 거의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부러 소리를 내시며 밭에서

나와 그들앞으로 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뒤에는 남리동무들이 서있었습니다.

뜻밖의 일에 추자리동무들은 겁을 먹고 달아빼려고 하였습니다.

《가기는 어데로 가려느냐. 우리들은 너희들과 싸움하러 온것이 아니니 무서워말고 거기 좀 섰거라.》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달아날 생각을 버리고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두 마을 동무들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남리아이들과 추자리아이들이 무엇때문에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움을 하느냐. 우리들은 모두 일본놈과 지주놈들의 등쌀에 헐벗고 굶주리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다. 우리들이 미워할 놈은 일본놈들과 놀고먹는 지주놈들이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가난하게 사는 우리들이 서로 도와가며 화목하게 살아야 하겠는데 지금처럼 싸움질을 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디 대답들을 해보라고 하시였습니다.

두 마을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머리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잠시후 추자리동무들가운데서 제일 큰 동무가 나서며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잘 몰라서 싸웠는데 다시는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잘못은 너희들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라 남리아이들에게도 있다. 그럼 오늘부터 다시는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놀것을 약속하자. 자 그럼 우리 함께 가서 미역이나 감자.》

이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두 마을 동무들을 데리고 미역을 감으시면서 그들사이를 가깝게 해주시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두 마을 동무들은 싸움을 하지 않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동무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잘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제22과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

어느 일요일 동무들은 만경대고향집에 오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데리고 마을가운데 있는 우물옆집으로 가시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줄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동무들에게 모두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빙

둘러앉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오늘은 사람의 힘에 대하여 이야기하겠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먼저 한가지 물어보자고 하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지금 조선사람들의 힘이 강하냐, 일본놈들의 힘이 강하냐?》

그러자 거의 모든 동무들이 일본놈의 힘이 강한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동무는 일본놈들이 총칼을 가지고있기때문에 힘이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동무는 조선을 먹어버린것만 보아도 일본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동무들의 말을 듣고계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조선사람들의 힘이 강하다고 본다. 그런데 왜 우리 조선사람들이 일본놈들한테 나라를 빼앗겼는가, 그것은 조선사람들이 한데 굳게 뭉치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사람들이 한데 뭉치면 일제놈들이 아무리 총칼을 가지고있어도 맥을 추지 못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것을 실례를 들어가며 이야기하시였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놀이때마다 하군 하는 힘내기놀이를 실례드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무리 힘이 센 동무도

여러 동무들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넘어뜨릴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한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합친 힘은 세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며칠전에 있었던 힘내기놀이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때에도 힘센 아이 한명과 힘이 약한 아이들 여러명이 힘내기를 하였는데 힘이 약한 아이들이 이겼습니다. 그것은 여러명의 아이들이 힘을 합쳤기때문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조선사람들도 우리가 힘내기놀이할 때처럼 대장의 주위에 하나로 뭉치기만 하면 일본놈들을 내쫓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킬수 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이야기는 동무들에게 왜 하나로 뭉쳐야 하는가를 똑똑히 깨닫게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동무들에게 하나로 굳게 뭉치면 일제놈들을 내쫓고 빼앗긴 나라를 찾을수 있다는것을 깨우쳐주시였습니다.

제23과
나누어 잡수신 점심

어느 가을날이였습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데리고 학교 뒤산으로 올라가시였습니다.

그리시면서 점심을 싸오지 못한 동무들도 함께 가자고 손목을 잡아 이끄시였습니다.

들판에는 곡식이 누렇게 익었지만 가난한 집들에서는 강냉이죽이 아니면 호박죽을 먹었습니다. 그것마저 넉넉치 못하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점심밥을 제대로 싸주지 못하였습니다.

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먼저 점심보자기를 풀어놓으시며 동무들에게 점심밥을 내놓으라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점심보자기에는 납작납작한 된장떡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나어린 몇명의 녀학생들은 변변치 못한 점심보자기를 헤치기가 부끄러워 돌아앉아 머뭇거리기만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나마도 없어 빈손으로 이끌려올라와 먼산만 바라보고 서있는 동무들을 가까이 불러앉히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먼저 된장떡 1개를 나어린 동무에게 주며 말씀하시였습니다.

《된장떡이 몇개 되지 않지만 우리 다같이 나누어먹자. 된장떡이긴 해도 쫀득쫀득한게 맛이 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빼앗긴 나라를 찾으면 우리도 지주놈들 부럽지 않게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잘살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나어린 동무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된장떡을 받아쥐였습니다.

그런데 된장떡이 적어 다 차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점심밥을 싸오지 못한 동무들은 저마다 서로 사양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된장떡을 절반씩 끊어 나누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점심밥을 못 싸오는 동무들에게 이렇게 자신의것을 나누어주군 하시다나니 점심을 건느시는 때가 많았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가난하게 사는 동무들의 집에 가시였다가도 그들을 생각하여 식사를 하지 않고 돌아오군 하시였습니다.

어느날 한 가난한 집 아이가 꼴을 베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변변히 먹지도 못한 앓는 몸이여서 꼴짐을 지고 비틀거렸습니다.

길가에서 그 모습을 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에게 꼴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다음 그것을 받아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꼴짐을 지고 그의 집마당에 들어서시였을 때였습니다.

그 집 할머니는 너무 고마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에 들어가 변변치 못한 저녁이라도 좀 들고 가시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집에 빨리 가봐야 한다고 하시며 끝내 사양하시고 그 집을 나서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가난하게 사는 동무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제24과
슬기로운 전술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동무들을 데리고 군사놀이를 하시였습니다.

이날의 군사놀이는 두편이 각각 진을 정하고 서로 자기 대장을 지키는 한편 반대편의 대장을 먼저 붙잡아오는 편이 이기게 되여있었습니다.

한편의 대장이 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낮은 산등성이의 한곳에 진지를 정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동무들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주시였습니다.

한 동무에게는 저쪽편의 움직임을 알아오는 정찰임무를 주시고 다른 동무에게는 저쪽편 아이들을 붙잡아

올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또 어떤 동무들에게는 몰래 숨어있다가 저쪽편 아이들이 오면 붙잡을 임무를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모든 동무들에게 임무를 주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자면 대장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여야 한다. 만일 명령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동무들에게는 벌을 내릴것이다.》

이어 군사놀이가 시작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정찰나갔던 동무의 보고를 받으시고 저쪽편의 움직임을 살피시다가 그에 맞는 전술을 쓰시였습니다.

저쪽편에서 약한 아이가 나오면 힘센 동무를 내보내시였습니다. 그리고 저쪽편에서 힘센 아이가 나오면 여러명의 동무들을 보내여 그를 붙잡아오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전술에 따라 동무들은 저쪽편 아이들을 한명한명 붙잡아왔습니다. 그런 다음 맨마지막에 저쪽편 대장을 붙잡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전반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편이 이겼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반전이 끝나자 모두 모여놓고 잘한 동무는 칭찬해주시고 규률을 어기고 개별행동을 하다가 저쪽편에 붙잡혔던 동무에게는 벌을 주시였습니다.

벌을 받은 동무는 약속한대로 땅에 그어놓은 동그라미안에 서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어 후반전에서 쓸 새 전술을 짜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여러 동무들이 진지옆에 숨은 다음 몇명만 나가 저쪽편을 홀려서 이끌어오자고 하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저쪽편에서 얕잡아보고 달려나올 때 모두 떨쳐나서 붙잡자고 하시였습니다.

모두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짜신 전술을 찬성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 임무를 주신 다음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벌을 받고 서있는 동무를 부르시였습니다.

《싸움이란 한사람이 싸워서는 이기지 못한다. 여럿이 힘을 합쳐야 이기는 법이다. 군사놀이라는것은 말그대로 군대들이 하는 싸움인데 군대는 명령을 잘 지켜야 싸움에서 이길수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동무를 자기 자리에 돌려보내시였습니다.

잠시후 후반전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편이 이겼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슬기로운 전술로 군사놀이때마다 이기군 하시였습니다.

제25과
끝까지 맞서나가야 한다

가을 어느날 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집으로 가려고 운동장을 나섰을 때였습니다.

한 지주 아들놈이 아래학년의 가난한 집 아이에게 제놈의 책보를 들고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들은척도 하지 않고 집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제편에서 성이 난 지주 아들놈은 그 아이를 《거지새끼》라고 하면서 때리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이들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지주 아들놈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후날 지주 아들놈이 행패질을 할가봐 두려웠기때문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어쩌지 못한다는것을 알게 된 지주 아들놈은 자기이상 없는것처럼 거들먹거렸습니다. 그놈은 번쩍거리는 구두발로 신발도 신지 못한 그 아이의 맨발등을 밟고서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몇몇 웃학년 학생들이 웬일인가 하여 또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권세있는 지주 아들놈을 다쳤다가는 재미없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말았습니다.

지주 아들놈은 더욱 우쭐해서 그 아이의 멱살을 틀어

잡고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그곳으로 다가오시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세상인듯 날치던 지주 아들놈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오시는것을 보고는 비실비실 도망쳤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울고있는 어린 아이의 어깨를 다정히 어루만져주시면서 어떻게 된 일인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옆에 있던 한 동무가 그를 대신하여 방금전에 있은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지주 아들놈이 달아나는쪽을 한참동안이나 쏘아보시다가 말씀하시였습니다.

《왜 지주놈의 새끼들과 싸워서 지고있느냐? 울지 말아. 그놈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것을 보면 더 우쭐해진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빙 둘러선 아이들을 보시며 깨우쳐주시였습니다.

《너희들은 자기 동무가 지주놈의 새끼한테 매맞는것을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너희 부모들은 지주놈의 구박에 허리를 못 펴고 사는데 그래 너희들까지 구박을 받아야 하겠느냐? 지주놈이 무서워서 그러느냐, 아니면 너희들의 힘이

모자라서 그러느냐? 너희들이 다 달라붙어 그놈을 꼼짝 못하게 욱질러놓으면 그놈도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된다.》

그러시면서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억눌리지 말고 못되게 노는 놈들과는 끝까지 맞서나가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아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못되게 노는 지주 아들놈과 맞서 싸울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깔보는 놈들과는 끝까지 맞서싸우도록 동무들을 깨우쳐주시였습니다.

제26과
음악유희 《열세집》

창덕학교에서는 봄과 가을을 맞으면서 운동회를 가지군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운동회가 끝난 다음 연예공연을 조직하시였습니다.

어느해 가을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가을운동회를 앞두고 음악유희 《열세집》을 비롯한 노래와 춤을 공연할 준비를 다그치시였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가사도 쓰시고 풍금도

잘 치시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공부가 끝나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풍금소리에 맞추어 춤과 노래련습을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노래와 춤을 섞어서 만든 음악유희를 지도해주시였습니다.

음악유희 《열세집》은 13명의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며 마분지로 된 우리 나라 13개 도의 지도를 붙여 하나의 조선지도를 만드는 춤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음악유희공연을 잘하시려고 밤늦게까지 지도하시였습니다.

어느덧 운동회날이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운동회가 끝난 다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지도하신 음악유희 《열세집》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풍금소리에 맞추어 《어린 동무 노래부르자》 노래가 울리였습니다.

자유의 강산에서 우리 자라고
평화의 락원에서 꽃피려 하는
새 나라 어린 동무 노래부르자
세상에 부러울것 그 무엇이냐

학생들은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학생들은 차례로 운동장 한복판에 세워놓은 판에

그림을 붙이면서 더욱 신이 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판에는 번쩍이는 지하보물과 푸른 숲 우거진 산림을 그린 그림들이 나붙었습니다. 그리고 펄펄 뛰는 물고기를 그린 그림도 나붙었습니다.

운동장에 세워놓은 판은 잠간사이에 굉장히 큰 조선지도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을 본 학생들과 학부형들은 요란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이라는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로 굳게 뭉쳐 일제놈들을 내쫓고 빼앗긴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순사놈이 갑자기 나타나 공연을 당장 그만두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지 몰라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순사놈을 쏘아보시다가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말씀하시였습니다.

《자기 나라의 산천을 자랑하며 노래하고 춤추는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일본놈들의 비위를 맞추어가지고서야 어떻게 조선사람들의 마음에 맞는것을 할수 있겠습니까? 놈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것을 버리지 말고 계속합시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음악유희공연을 계속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음악

유희공연을 통하여 학생들과 학부형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시였습니다.

제27과
놀라운 소식을 받으시고

어느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날도 동무들과 함께 웃방에서 공부하고계시였습니다.

그런데 만경대에서 손님이 왔다간 다음 외할아버님께서 웃방에 들어오시여 오늘은 학습을 그만하고 헤여지라고 하시였습니다.

외할아버님께서는 잠시후 나어린 대원수님께 아버님께서 또다시 일제경찰놈들에게 체포되시였다는것을 알려주시였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으시는 순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가슴속에서는 일제놈들에 대한 증오가 불타올랐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학교에 다녀오겠다고 하시며 밖으로 나가시였습니다.

운동장에서 기다리던 동무들이 모여와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고 물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뒤산에 올라가 이야기나 나누자고 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따라 뒤산으로 올라

갔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 면 북쪽하늘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시였습니다.

《중국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일제경찰놈들에게 체포되시였다는 소식이 왔다.

그래 나는 너희들과 헤여져 어머니가 계시는 8도구로 가야겠다. 이제 가면 언제 다시 여기로 올지 모르겠다.

래일이라도 당장 떠나겠다. 내 이만큼 자랐으니 어디 간들 피값이야 못하겠는가? 어떻게 해서도 아버지의 원쑤를 갚고야말겠다.》

동무들은 눈물이 글썽하여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손을



칠 골 결 의 터

잡고 졸업할 때까지라도 있다가 가시면 안되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졸업을 몇달 앞두고 동무들과 헤여지자니 무척 괴롭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자기의 희망대로 배울래야 배울수 없고 정든 고향땅에서 동무들과 마음껏 뛰놀래야 뛰놀수 없는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일제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시였습니다.

《나는 일제놈들과 끝까지 싸워 조선을 독립하기 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결심이다.

너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애국의 정신을 키워 장차 왜놈들을 쳐부시는 싸움에 떨쳐나서야 한다.》

얼마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뒤산에서 내려와 정든 교실을 돌아보신 다음 선생님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시였습니다.

동무들은 그날 저녁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헤여지는것이 아쉬워 대원수님을 모시고 한자리에 모여앉았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끝까지 싸울 결심을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모두 잘 싸워 나라를 찾은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음날 외가집어른들과

동무들의 바래움을 받으시며 만경대로 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님께서 체포되시였다는 놀라운 소식을 받으시고 나라를 찾기 위한 길에 나설 결심을 다지시였습니다.

제28과
광복의 천리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14(1925)년 1월 22일 길 떠날 차비를 갖추시고 고향집을 나서시였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이제 또다시 혼자서 천리길을 걸어가셔야 할 나어린 대원수님께 밤새워 삼으신 짚신 두 컬레를 주시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님께서는 삶은 고구마 몇알을 꾸려주시였습니다.

남리언덕에 이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할아버님, 할머님께 허리굽혀 인사를 드리며 말씀하시였습니다.

《할아버님… 할머님… 부디 편안히 계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나라를 찾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장하다! 과시 네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 사내대장부다.》

할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시였습니다.

할머님께서도 흐느껴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몇번이고 정든 고향을 돌아보시며 만경대를 떠나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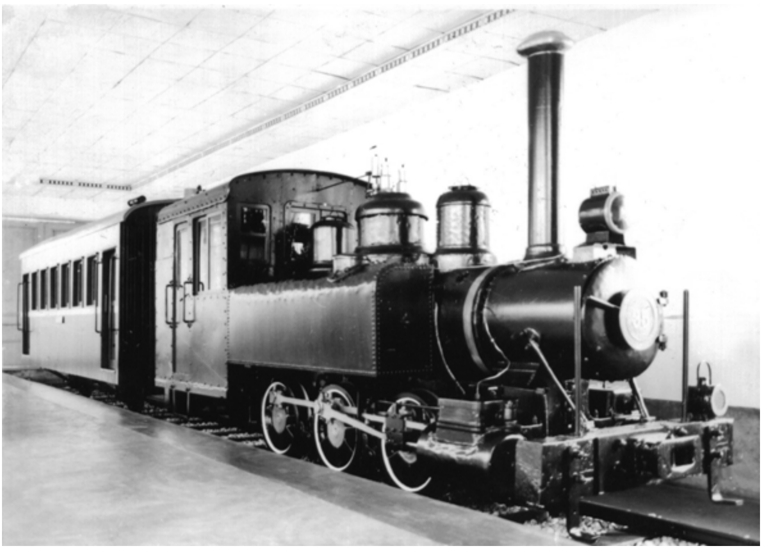
평양역에 이르시니 역에는 칠골의 작은외삼촌과 창덕학교의 다정한 동무들이 벌써 나와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에워싸고 헤여지기가 너무도 섭섭하여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습니다.

어느덧 기차가 떠날 시간이 되였습니다.

이때 창덕학교의 한 동창생이 두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밥꾸레미와 함께 봉투 한장을 드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타시였던 기관차와 객차

헤여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기에 서운해서 몇자 적었으니 차칸에 올라가 뜯어보시라고 하였습니다.

기차가 평양역을 떠나자 동무들이 따라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오래 손을 저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기차가 떠난 후 동무가 준 봉투를 뜯어보시였습니다. 봉투속에는 짤막한 편지 한 장과 돈 3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의 마음을 고맙게 여기시며 뜨거운것을 삼키시였습니다.

평양역을 떠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신안주를 거쳐 개천까지 기차를 타고가시였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줄곧 걸으시였습니다.

눈덮인 산을 넘고 강을 건느시며 구장, 향산, 희천을 지나 걷고 또 걸으시였습니다.

날짐승도 오르기 힘들어하는 명문고개를 넘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천, 강계를 거쳐 오가산령의 오솔길을 걸어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멀고 험한 길을 걷고 걸으시면서 일제의 발굽밑에 짓밟히고 천대받는 인민들의 비참한 모습들을 보시였습니다.

그리시면서 헐벗고 굶주리는 인민들을 구원할 결심을 굳게 다지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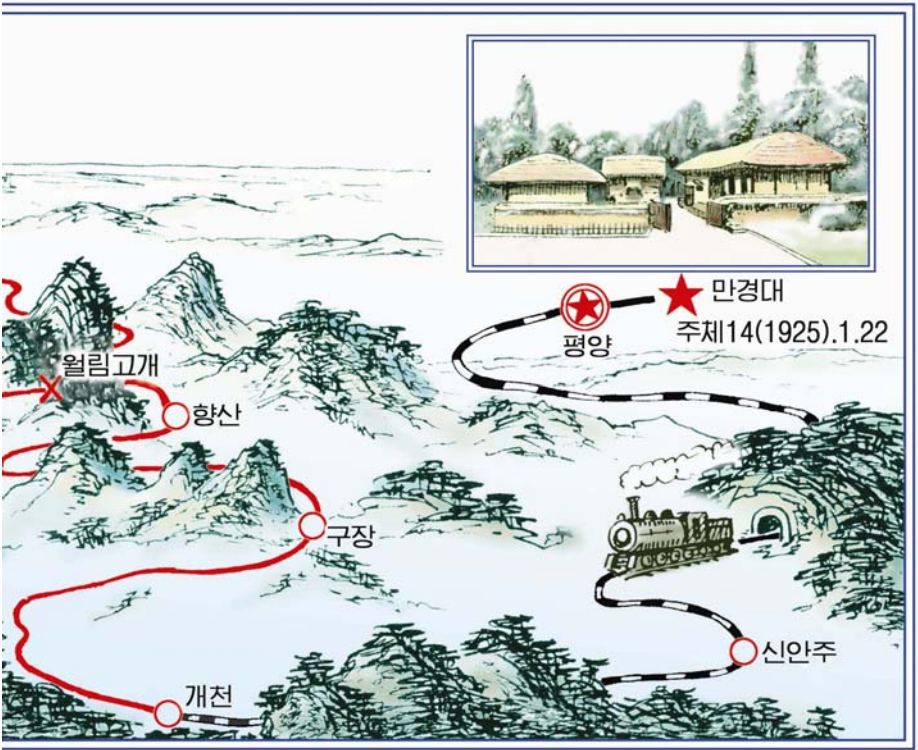


광복의 천리길 로정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만경대를 떠나신지 열사흘째 되는 날인 2월 3일 저녁에 눈덮인 압록강기슭 포평나루터에 이르시였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차 압록강을 건느시지 못하고 지나온 조국산천을 돌아보시였습니다. 조국땅을 바라보시니 사랑하는 고향으로, 고향집으로 다시 달려가고싶은 마음을 누를수 없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찬바람 부는 압록강기슭에 서시여 기어이 일제놈들을 쳐부시고 빼앗긴 나라를



찾고야말리라는 결심을 다시금 굳게 다지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시며 강을 건느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나는 열네살 때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나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

가, 이렇게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도 슬픔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14살 어리신 나이에 빼앗긴 나라를 찾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였습니다.

제29과
푸쑹제1소학교에서

2월 3일 저녁이였습니다.

압록강을 건느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께서 계시는 바다오거우(8도구)에 이르시였습니다.

그때는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시였던 아버님께서 적들의 손에서 빠져나오신 때였습니다. 그래서 집은 일제놈들의 감시속에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의 말씀대로 동생들을 데리고 그날 밤 린쟝(림강)으로 떠나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후에는 어머님, 동생들과 함께 아버님께서 혁명활동을 벌리고계시는 푸쑹(무송)으로 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립던 아버님께 조국에서 보고 느끼신것을 이야기하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두번 다시 압록강을 건느지 않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리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조선의 아들이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기서도 조국과 민족을 알기 위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해 4월 어느날 푸쑹제1소학교(무송제1소학교)에 편입하시였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을 다 모여놓고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에서 공부하다가 아버님을 따라 이곳에 왔는데 앞으로 잘 도와달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날부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열심히 공부하시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중어, 산수, 력사, 지리, 체조, 음악 같은 과목들을 배워주었는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느 과목이나 뛰여나게 잘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노래도 잘 지으시였으며 축구나 체조 같은것은 따를 학생이 없었습니다.

동무들은 시간만 있으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조선에 대하여 그리고 고향에 대하여 이야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제놈들에게 짓밟히고있는 조국에 대하여 말씀해주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누구나 나서자란 고향을 사랑하듯이 자신께서도 만경대를 사랑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만경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였습니다.

어찌나 이야기를 잘하시는지 만경대고향집이며 만경봉을 감돌아흐르는 대동강이 한눈에 안겨오는것 같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날이 갈수록 그리운것은 고향이라고 하시면서 조선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살길을 찾아다니는것은 일제놈들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나는 이번에 압록강을 건너오면서 왜놈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광복하지 않으면 조국땅을 다시 밟지 않으려고 결심하였다.》라고 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감동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푸쑹제1소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일제놈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찾고야말 결심을 더욱 굳히시였습니다.

제30과
《일본제국주의 타도, 조선독립》

어느 봄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봄놀이를 가게 되시였습니다.

학교에서 조직한 봄놀이였습니다.

가난에 쪼들리며 사는 학부형들도 이날만은 명절을 맞은것처럼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점심밥을 싸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나오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줄을 지어 봄놀이장을 향하여 떠나시였습니다.

학교정문을 나서자 동무들은 기쁨을 누르지 못하며 걸음을 다그쳤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조선에서도 해마다 한두번씩 원족을 간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룡악산과 정방산에 가서 놀던 이야기를 들려주시였습니다.

어느덧 놀이장에 이르게 되였습니다.

봄놀이를 책임진 선생님은 몇가지 주의를 주고나서 반별로 놀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몇명씩 짝을 무어 즐겁게 놀기 시작하였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식물채집도

하면서 여러가지 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조용히 숲속을 걸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눈앞에는 창덕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동무들과 함께 정방산이며 룡악산으로 원족을 가시였던 일이 삼삼히 떠오르시였습니다.

이해 봄에도 아름다운 과일꽃이 피였을 만경대고향집이며 소나무 푸른 만경봉이 한눈에 안겨오는듯 하시였습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원쑤 일제를 내쫓고 나라를 찾아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나무앞에 이르시여 손칼로 나무에 《일본제국주의 타도, 조선독립》이라는 글을 새기시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새 힘이 솟는 글발이였습니다.

뛰놀던 학생들이 그 글을 보고 모여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옆으로 지나가던 교장선생님이 흠칫 놀라며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학생이 어떻게 강대한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실수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둘러보시며 자신있게 대답하시였습니다.

《조선인민은 누구나 다 왜놈을 미워하고있습니다. 인민의 힘을 한데 모으면 능히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거침없는 대답에 모여섰던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14살의 어리신 나이에 그처럼 큰뜻을 지니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존경어린 마음으로 우러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이때벌써 인민들의 힘을 모아 일제놈들을 때려부실 큰 마음을 지니고계시였습니다.

제31과
아버님의 유언을 받으시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푸쑹제1소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혁명의 큰뜻을 키워나가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처럼 몰라보게 자라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보시며 끝없는 기쁨과 만족을 느끼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병은 주체15(1926)년 봄부터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아픔을 이겨내시며 나라 찾는 싸움을 계속 힘있게 벌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무렵 아버님으로부터 혁명투쟁을 하는데서 지켜야 할 귀중한 가르

치심을 받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것은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3대각오에 대한 말씀이다.》

아버님께서는 그때 혁명가는 굶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 얼어죽을 각오를 가지고 처음 먹은 큰뜻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동무들을 많이 사귀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6월 5일이였습니다.

마지막시각이 가까와옴을 느끼신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날 때는 독립을 이룩하고 함께 돌아가자고 하였는데 나는 못 갈것 같소. 나라가 독립되면 당신이 **성주**를 앞세우고 고향에 가오.》

그러시고는 어머님께 권총 두자루를 내놓으시면서 후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투쟁의 길에 나설 때 주라고 부탁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 두 동생과 함께 슬픈 마음으로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나누시는 말씀을 들으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눈길로 세 아드님을

차례로 둘러보시였습니다.

이윽고 아버님께서는 있는 힘을 모아 마지막유언을 남기시였습니다.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다. 그러나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라와 민족의 몸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뼈가 부서지고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아버님께서는 이런 뜻깊은 말씀을 남기신채 32살에 너무도 일찌기 세상을 떠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있어서 아버님을 잃으신 슬픔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이겨내시며 아버님의 말씀대로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나라를 찾으리라 굳게 마음다지시였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을 가슴깊이 간직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마침내 일제를 때려부시고 빼앗겼던 우리 나라를 찾아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소학교 제4학년용)

제3판

집 필 부교수 강홍수, 김영식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리 철 콤퓨터편성 전명희

장 정 류명심 교 정 오혜란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2판발행 주체98(2009)년 9월 14일

3판인쇄 주체101(2012)년 2월 10일 3판발행 주체101(2012)년 2월 20일

교－12－보－602 값 10 원